

장성군, 백종원과 손잡고 상무대 MZ장병 먹거리 챙긴다

더본코리아와 장병 60여명 초청 지역상생급식 품평회 아이스홍시 등 장성산 식재료 활용한 음식 30종 선보여 내년초 연구용역 마무리 업체·식당 등 모집해 본격 시판

장성군이 외식 전문가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상무대 군 장병의 건강한 먹거리 챙기기에 나섰다. 장성군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최근 상무대에서 '지역상생급식 품평회'를 열고 군 장병 60여 명을 초청해 장성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품평회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상무대 학교장, 급양 관계자, 지역 청년 요리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성군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지난 8월부터 '상무대 지역상생급식 제철농산물 활용 매뉴얼·개발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하며 지역 특화 음식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비 900만원을 들인 연구용역은 내년 1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품평회에서는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30여 가지 음식을 선보였다. 새싹삼 누룽지 갈비탕과 차돌 된장찌개, 우삼겹

비빔밥, 소불고기 김치덮밥, 떡볶이 불고기 등이 제공됐으며, 반찬·후식으로는 양념깻잎, 장아찌, 장성사다리빵, 아이스홍시 등이 나왔다. '상무대 지역상생급식'은 한 달에 한두 차례 군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 진행된다. 그동안 장병들은 식당이 운영하지 않는 주말이면 피자·치킨과 같은 배달음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 왔다. 상무대 지역상생급식은 군 장병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평회에 참여한 장병들은 "신선한 지역 식재료로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며 모든 음식에 고르게 점수를 줬다. 장성군은 품평회에서 장병들이 낸 의견을 반영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확정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은 상무대 지역상생급식 뿐만 아니라 내년 문 여는 장성 로컬푸드 점



새싹삼 누룽지 갈비탕, 아이스홍시 등으로 구성된 장성군급식.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다. 장성 로컬푸드 점마다 직매장에 납품하는 지역 농가는 모두 600여 농가로, 지역 특화 음식이 개발되면 이들 농가의 판로를 넓힐 것으로 장성군 측은 기대했다.



장성군과 ㈜더본코리아가 최근 상무대에서 연 '군급식 품평회'에서 장병들이 장성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내년 초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음식을 조리할 인력과 지역 참여업체·식당 등을 모집해 본격적인 시판 준비를 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상무대와의 상생 협력 또한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엠지(MZ)세대 장병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한 양질의 음식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고택·종갓집 분야 문화재청장상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최근 2023년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가 주관한 2023년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고택·종갓집 분야에서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 고택·종갓집 분야 수상에는 강진과 경기 고양시,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 등 4곳이 선정됐다. '더#252 영랑생가'는 시문학파기념관이 지난 2021년부터 기획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정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의·식·주·의례 등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밖에도 ▲강진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자유학년제 콘텐츠 영랑 감성아카데미 ▲영랑의 일대기와 강진의 옛이야기를 구현하는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영랑 시인학교 등을 진행했다. 영랑생가(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의 문화재적 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강진 시문학파기념관(관장 이석우·오른쪽)이 최근 문화재청이 주최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제공>

이석우 시문학파기념관장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기존의 박제된 문화재 보호 정책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문화재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재청 국책사업"이라며 "강진군을 방문하는 시문학·예술인과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인문학적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더#252 영랑생가 콘텐츠가 올해도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강진군의 문화재 활용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13년째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참전한 지역관광에 활기를 넣어 연간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맞이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 노안지구, 주거·문화지역으로 탈바꿈

친수구역 조성사업 22일 준공 승인

나주시가 노안면 일대에 추진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오는 22일자로 준공 승인을 받는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문화,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지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

난 11년간 총사업비 306억원을 투입해 10만4000㎡(약 3만2000평)에 주거, 숙박 및 문화체험시설 등의 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했다. 또 노안지구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편리함과 함께 전원생활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조성된 단지에 분양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등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입주 시설의 옥상 및 지붕에 녹화 등 다양한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적용하는 환경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미니 파프리카 日 수출길 오른다

도쿄·지바 식품판매 업체와 협약

화순에서 난 미니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수출된다. 화순군은 최근 구북규 화순군수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 지바를 찾아 식품 판매 전문기업인 하나마사 등과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진호 한국농협인터네셔널 법인과 토미자와 나츠키 하나마사 대표, 문형운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하나마사는 이번 협약에서 우선 500kg의 미니 파프리카를 주문한 뒤 수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앞으로 ▲신선 농산물 제공·개발·상품 발굴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일본 시장 진출·개척을 위한 협력 ▲신선 농산물 홍보활동 지원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은 올해 5600만원 상당 7t의 미니 파프리카를 수출할 예정으로, 내년 목표 수출액은 1억원(10t)으로 잡았다. 도곡파프리카법인은 올해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미니 파프리카 판로를 넓히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광장과 베르크 등 8개 매장을 찾아 미니 파프리카 판촉 행사를 열었다. NH농협무역의 일본 지사인 한국농협인터네셔널



구북규(오른쪽) 화순군수와 토미자와 나츠키 하나마사 대표가 화순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날은 1999년 12월에 설립돼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직판 또는 계약재배 등에 힘쓰고 있다. 하나마사는 53개의 직영점과 별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 4286억원 상당 매출을 기록한 온·오프라인 식품 판매·유통 전문점이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미니 파프리카의 우수한 상품성이 일본에서도 빛이 났다"며 "더 나아가 화순군 신선농산물이 중국, 홍콩, 동남아 등 신규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이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담양 음식 특화농공단지 투자협약식'을 열고 투자 기업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 '활력' ...9개 기업과 투자협약

입주의향 기업 14개로 늘어

담양군이 입주 의향 기업과 잇따라 협약을 맺는 등 음식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담양 음식 특화농공단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예코월드팜 등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 음식 특화농공단지 입주의향서

를 제출한 기업은 14개로 늘어났다. 담양군은 고서면 산터리와 장평면 의향리 일원에 2030년까지 음식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 특화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담양군은 기대한다. 또 음식 특화농공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

요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투자협약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메디 푸드(건강 음식), 슬로 푸드(슬로시티 명칭을 딴 음식·한과 또는 쌀 엿 등), 전통식을 활용한 음식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 평촌~지변 농어촌도로 306호선 준공

1.1km 구간 폭 8m로 확장

함평 평촌마을과 지변마을을 잇는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이 최근 준공됐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장·포장공사는 월야중학교에서 월야리 지변마을까지 길이 1.1km,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총사업비 16억원(특별교부세 6억원·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착공했다. 함평군은 이번 공사를 통해 월야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열린 준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윤영량 함평군의회회장, 군의원,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월야리 마을 주민들은 이군수와 이 의원에 감사패를 전했다. 이 군수는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과 통행 불편에도 기다려주신 월야면 주민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 함평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나산 농어촌도로 201호선(안영-월평) 등 6개 노선 확포장 공사를 벌여 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내년 상반기 빈집 25동 리모델링

유학생, 귀농·귀촌인에 제공

강진군이 빈집 리모델링으로 도시민 유치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강진군은 새해에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진군은 민선 8기 신(新)강진시대의 핵심 목표인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내년 상반기 사업량은 25동으로 장기 임대 20동, 자가 거주 5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15일까지 빈집 리모델링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하면 군은 5년 임대시 5000만원, 7년 임대시 7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다. 전입 예정인 관외 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빈집은 농산어촌유학생 및 귀농·귀촌인을 모집해 제공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년에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 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면서 "지방소멸 위기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